

4.3 장애인 이동권 시민 설계 프로젝트

Civic Emotional Mobility Design

Ma-eum Mobility 철학 선언문 (초안)

장애인은 배려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.

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,

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사회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.

이것은 선의의 차별이나 특별 대우가 아닌,

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,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감각적 자유를 설계하는 일입니다.

Ma-eum Mobility는

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,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.

불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, 공존을 디자인합니다.

프로젝트 목적

이 프로젝트는 이동권을 '물리적 접근성'이 아닌 '정서적 자율성'의 문제로 본다.

즉, "어디든 갈 수 있다"는 감각이 아니라,

"어디서도 배제되지 않는다"는 감각

을 설계하는 것이다.

"진짜 이동권이란,

한 사람의 감정이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."

핵심 개념

요소	정의	
Emotional Access	이동의 자유가 감정적 위축 없이 가능해야 함	
Sensory UX	신체와 감각에 따라 UX가 반응하도록 설계	
Civic Solidarity	시민 전체가 이 UX 흐름을 이해하고 참여해야 진짜 이동권이 완성됨	

Ma-eum Mobility UX 설계 (사용자 수 기반)

✓ 1. 메인 인터페이스는 모두 동일하게

모든 사용자는 같은 앱, 같은 정류장, 같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.

항목	설명
앱 첫 화면	목적지 설정, 현재 위치 안내, 도착 시간, 주변 이동정보 요약
시각장애 사용자	설정 메뉴에서 "감각 보조모드" 선택 시: 음성 + 진동 안내 자동 활성화
휠체어 사용자	설정 메뉴에서 "경사 진입 우선 모드" 선택 → 자동으로 경로가 조정됨

 **대상 인원: 전체 10,000명 중 약 300명 (3%)*만 해당 모드를 따로 활성화
→ 그 외 97%는 자연스럽게 동일한 기본 UI 사용

✓ 2. '다수에겐 보이지 않고, 소수에겐 즉각 작동하는' 감각 UI 배치

감각 정보	UX 방식	작동 인원
진동 안내	방향 전환 시 손목에 2회 진동	약 80명 (0.8%)
음성 피드백	도착/이동 시 "곧 도착합니다, 오른쪽으로"	약 200명 (2%)
화면 명암 강조	저시력자 대비 모드: 색상 대비 자동 조정	약 50명 (0.5%)

✓ 다수 사용자에게 '방해가 없는 상태 유지'

✓ 소수 사용자에게 '감각 동기화된 안내 제공'

✓ 3. 공간 설계: 한 공간, 다수 동선 / 소수 존중

공간	설계 방식	사용자
버스 정류장	진입로는 경사로 포함한 통합 구조 (디자인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)	모든 사용자

대기 공간	의자 대신 벤치형 + 휠체어 공간 분리 안 함 → 유동적 사용 가능	모든 사용자
탑승 시	자동 인식 (휠체어 또는 장애 설정 시) → 우선탑승 지원, 음성 없음	약 50명

❌ "장애인 전용" 표식 없음

✅ 자연스럽게 혼용 가능한 감각 흐름 구조

✅ 4. 도움 요청/응답 시스템 (초소수 중심 UX)

기능	UX 흐름	적용 대상
도움 요청	앱/스마트워치 → "도움이 필요합니다" 1회 탭 → 주위 10m 내 사용자에게 조용히 알림	약 30명 (0.3%)
응답	"도와드릴게요" 클릭 → 진동 + 표시음으로 상대방 확인 가능	약 50~200명 응답

✓ 비장애인에게는 선택적 참여 구조 (압박 없음)

✓ 도움 요청자는 정중하고 안전하게 보호됨

💬 **결론: "많은 사람이 불편하지 않으면서,**

소수는 충분히 존중받는 구조"

장애인은 소수이기에,

UX는 그 소수를 전체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합니다.

전체를 위한 시스템이지만,

소수를 '지우지 않고', '숨기지 않고', **조용히 배려하는 방식**으로 존재하게 합니다.

이것이 Ma-eum Mobility의 설계 철학입니다.

🌱 정책적 확장

- 지방자치단체 감정UX 설계 의무화 제안 가능

서울시, 광주광역시 제안문

- **Ma-eum Company의 사회적 기여 항목으로 등록**
- **공공 디자인 공모전/실험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**